

帶下症의 형상의학적 치료

김혜경¹ · 강경화 · 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한의학연구소, 1:도인한의원

Treatment of morbid leukorrhea with Hyungsang Medicine

Hye kyung Kim¹, Kyung Hwa Kang, Yong Tae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1:Do In Oriental Clinic

After analyzing the cases of treating female patients troubled with morbid leukorrhea, the writer drew the conclusions as follows. The shapes of patients with morbid leukorrhea show a large number of shapes of Gi type, Sin type or being inclined to be vigorous Gi, to have depressive syndrome due to disorder of Gi, to be Fire's nature flared upward, to become retention of phlegm and fluid, to become retention of Gi or to become retention of heat, or San syndromes. Accompanied syndromes of morbid leukorrhea appear over the body of upper, middle or lower portion. In lower cho, the symptoms are menopathy, menstrual irregularities, oligomenorrhea, itching of external genitals, San syndromes, infertility, lumbago which are connected with uterus. And in the middle cho, those are indigestion, nausea, distress in the stomach, vomiting, swallowing acid connected with digestive organs. And also in the upper cho, globus hystericus, chest distress, headache, dizziness, neck stiffness, heat in the upper, pimples connected with upper cho are appeared. Among the prescriptions of treatment for morbid leukorrhea, Ijintang was applied with the widest range of all. Besides that there were mainly prescribed for symptoms such as Gamisachil-tang, Haenggihyangso-san, Gamigwibi-tang, Hyangsapyeongwi-san, Onkyung-tang, Banchong-san, Yongdamsagan-tang, Sogampaedok-san, Ojeok-san, etc.

Key words : morbid leukorrhea, hyungsang medicine, Gi type, Sin type

서론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서구화한 식생활로 인해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식생활에서 너무 기름지고 厚味한 음식으로 인한 痰飲, 소화기의 문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중에 帶下도 포함된다.

帶下는 生理的인 帶下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性器 分泌物이 증가하여 外陰部 부위를 濕潤 또는 오염시키는 病的인 상태를 말하며, 심하면 陰部 發赤, 癢痒, 냄새 등으로 괴로움을 유발한다.

서양의학에서는 병적인 帶下를 機能性 帶下와 基質性 帶下로 분류한다. 機能性 帶下는 난소의 內分泌 機能障礙에 起因하거나 子宮後屈에 의한 鬱血性 帶下로, 基質性 帶下는 감염에 의

해 發生하거나 惡性的의 子宮腫瘍, 肉腫, 絨毛上皮腫 등에 起因¹⁾한다고 본다.

한의학에서 帶下는 “從帶脈而下”의 뜻으로 女性性器의 分泌物을 총칭한다.²⁾ 帶脈이란 아래쪽 옆구리에서 일어나 몸을 한 바퀴 감싸고 허리띠로 묶는 것처럼 다른 經脈을 묶어주는 經脈³⁾을 말한다. 또 《東醫寶鑑》에서는 “부인에게 帶下가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니 급히 치료해야 한다.”⁴⁾고 하였다. 이러한 帶下는 女性性器의 병변을 알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상이므로 임상 진단상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帶下라는 한 가지 증상만 가지고 오는 경우 보다는 胞나 前陰, 七情, 소화기나 痰飲에 관계되는 다양한 증상들을 함께 가지고 오는 경우가 더 많다. 즉 月經不調, 生理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시 부산진구 진리1로 10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tleee@deu.ac.kr, · Tel : 051-850-8635

· 접수 : 2007/03/20 · 채택 : 2007/04/03

1) 韓方婦人科學, p. 230

2) 仲景全書, p. 419

3) 對譯東醫寶鑑, p. 2346

4) 對譯東醫寶鑑, p. 310

痛, 不妊, 子宮內的 癥瘕 積聚, 소화기의 문제, 小便, 스트레스 등과 연관되어 나타나므로 정확한 진단을 해야 좋은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

《東醫寶鑑》에서 “帶下는 濕熱로 인해 병이 된 것이며 적색은 血에 속하고 백색은 氣에 속한다”라 하였고, “살찐 사람의 帶下는 濕痰으로 인한 것이고, 마른 사람의 帶下는 熱로 인한 것이다”⁵⁾라 하여 形象과 病因에 맞게 치료하였다. 또 《韓方婦人科學》에서는 帶下를 原因과 色態에 따라 六淫性 帶下, 內傷性 帶下, 瘀血 癥瘕性 帶下, 五色 帶下로 분류하고 각각을 세분하여 그에 적합한 치법을 적용하고 있다.

形象醫學에서는 같은 帶下症이라도 환자의 臟腑와 形色이 다르면 치료를 다르게 한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나타나는 發顯象을 形色脈症으로 습-하여 病理를 구하고 그에 적합한 치법에 따라 치료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帶下의 증상을 形象醫學의 觀點에서 치료하여 우수한 효과가 있었던 臨床例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 론

1. 形象醫學的 治療

형상의학의 특징은 사람을 각각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形象으로 분류하여 치료하는 것에 있다.

1) 膽膀胱體

芝山은 陰陽動靜의 관점에서 膽體와 膀胱體로 구분하였는데 陰陽論의 膽體는 陽盛陰虛하고 膀胱體는 陰盛陽虛하며, 氣血論의 膽體는 多氣少血하고 膀胱體는 少氣多血하며, 形氣論의 膽體는 氣盛形衰하고 膀胱體는 形盛氣衰하다고 하였고, 기본 병리로 膽體는 血虛有火, 膀胱體는 氣虛濕痰로 보고 치료한다.

2) 精氣神血科

또 芝山은 사람의 形象을 人體의 구성요소에 따라 精氣神血科로 분류하였는데, 人體의 기본요소인 精氣神血을 4가지 얼굴형으로 나누어 精科는 圓形, 氣科는 方形, 神科는 逆三角形, 血科는 三角形 혹은 上中下의 長形으로 形象化 하여 이에 따른 生理病理와 診斷 治療를 하였다. 기본적인 생리병리로는 精科는 凝集하는 경향의 생리기전을 가지나 병리적으로는 陽虛하여 精이 不化하여 敗하거나, 精을 漏泄하는 경향을 가지며, 氣科는 發散의 경향을 가지나 病的이 되면 氣滯나 氣虛가 되고, 神科는 安定을 추구하나 병리적으로는 七情鬱結, 痰火의 병증을 갖게 되며, 血科는 包하려 하는 경향을 띠는데 血을 包하지 못하면 出血이 되거나, 혹은 滯하면 瘀血이 된다.⁸⁾ 그러므로 各 形象에 적합한 치료를 한다.

3) 臟腑形象

臟腑의 병은 色과 耳目口鼻와 五臟의 大小高低剛柔正編을 위주로 판단한다. 이때, 코는 肺에 배속하며 어깨의 넓이, 가슴의

함몰 등을 보고, 혀는 心에 배속하며 갈우로 판단하고, 눈은 肝에 배속하여 눈의 크기로 판단하고, 귀는 腎에 배속하는데 귀의 好惡으로 보고, 입은 脾에 배속하여 脣舌의 好惡으로 판단하고, 膈은 눈 밑의 臥蠶의 크기로 보고, 小腸은 입술의 厚薄과 人中의 길이로 보고, 三焦는 鼻柱의 中央隆起의 상황으로 보며, 胃는 뼈의 넓이, 목둘레, 胸의 넓이로 보고, 大腸은 鼻隧의 길이로, 膀胱은 鼻孔이 드러난 상태를 보아 진단하고⁹⁾ 이에 맞게 치료한다.

4) 魚鳥走甲類

芝山은 人體의 형성원리에 따라 魚鳥走甲類로 구분하였는데, 코는 肝, 눈은 心, 귀를 肺, 입을 腎에 배속하였다. 走類는 肝이 크며, 走行을 잘하고, 魚類는 腎이 크며, 潛下를 잘하고, 鳥類는 心이 크며, 飛上하고, 甲流는 肺가 크고, 隱伏하기를 좋아한다.¹⁰⁾ 기본치법으로 魚類는 補精補陽을, 鳥類는 滋陰降火를, 走類는 清熱瀉濕을, 甲類는 解鬱消痰을 위주로 한다.

5) 六經形

芝山은 人體의 氣血昇降으로 형성된 氣勢와 經絡의 流注 부위의 발달된 상태를 구별하는 六經形을 창안하였다. 六經形의 관찰은 望診하기 편한 얼굴에서 주로 살피며, 특히 氣血의 昇降을 표출하는 코와 눈의 昇降 氣勢와 顔面의 突出과 陷凹의 상태로 관찰한다.¹¹⁾ 그리고 六經形에 따라 적합한 치료를 한다.

6) 形象醫學的 治療

芝山은 “한의학은 人間科學이므로 理論과 治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이론과 실체가 일치되기 때문에 임상의 大道인 形色脈症의 습-을 구하여 약이 딱 하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실제 임상에서 形色脈症의 습-을 구함에 있어 어떤 때는 形을 위주로, 어떤 때는 色을 위주로, 어떤 때는 脈을 위주로 또는 症을 위주로 병리를 구하여 처방을 택한다.”¹²⁾고 하였다.

2. 帶下의 形象醫學的 治療의 臨床例

帶下는 여성의 질병 증상 중에서 가장 흔하나, 간과할 수 없는 증상에 속하는데 治驗例는 세운 한의원의 3례, 경희대 한방병원 부인과의 4례와 도인한의원의 26례 등 총33례의 임상사례로, 대상자의 연령이 대부분 20~36세로 한정되어, (그중에 4례는 10세 미만의 女兒들의 陰部癢癢과 帶下의 臨床例) 帶下에 관해 포괄적인 예시라고 할 수는 없으나, 形象醫學적인 관점에서의 치료로 효과가 유의하였던 臨床例를 모아 분석해 보았다.

3. 總括 및 考察

形象이나, 色을 위주로 치료한 증례가 27례, 脈을 위주로 한 것이 3례, 症狀를 위주로 한 것이 12례였다. 이것을 다시 세분하여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게 되었다.

精氣神血科로 形象을 분류해 보면 氣科 (卯西形 氣科, 氣實者 포함)에 속하는 경우는 16례였고, 神科는 2례였으며, 血科와 精科에 속하는 형상은 없었다. 臟腑形象으로 볼 때 三焦가 結한 경우가 4례, 小腸(人中이 짧은 경우)이 3례가 있었다. 魚鳥走甲類

5) 對譯東醫寶鑑, p. 311

6) 韓方婦人科學, p. 230

7) 芝山形象醫案, p. 25

8) 芝山形象醫案, p. 26-27

9) 上揭書, p. 29

10) 上揭書, p. 27-28

11) 上揭書, p. 28

12)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머리말

로 분류해 봤을 때는 鳥類가 3례, 走類가 1례였다. 六經形으로는 太陽形이 2례, 陽明形이 3례, 三陽 발달이 1례가 있었다.

表 1. 證例分析標

분류	번호	이름	나이	형색	맥	증상	지방	考察
형증	1	박 00	24	담체, 코위주, 담음기, 키168cm	85/88 심-담-방광	帶下, 생리통, 손골저림, 홍민, 오심, 두 훈, 상열	이진탕 帶下方 / 사물탕 생리통방	담체, 남자같은 형상의 기골, 담음
형	2	황 00	34	방광체, 지적상, 입술두툼, 산근저, 코 끝내려먹음,	76/66 간-대장-담	냉다, 추위탕, 7년전요염좌후요통	오적산	방광체, 지적상의 한습에 의한 손상
형	3	김 00	28	기과, 목길고 관골 발달, 코내려먹음, 키 (169cm), 눈꼬리 올라감.	73/77 비-소장-담	매핵기, 帶下, 생리시 흉통, 두통, 항강, 수족비	①가미사질탕 ②행기향소산	기과의 기체
형	4	김 00	31	기과, 太陽形, 코위주, 관골대	73/73 비-소장-담	적帶下, 생리통, 랑감소, 1달간감기, 식 욕부진, 구취, 가래, 대변경	행기향소산 가미	기과의 감기경 식적
형	5	이 00	20	묘유형기과, 얼굴볼록, 삼초결, 코위주	73/79 비-소장-담	생리통심, 帶下유취심, 두통, 현훈, 속 쓰림, 열미심	이진탕 현훈방	묘유형기과 담화로인한 현훈방
형	6	박 00	34	묘유형기과, 면적, 삼초결, 관골기미, 코가강함	90/92 심-담-방광	자궁내막증, 난관수종, 하복방자통, 소화불량, 帶下	행기향소산, 거마환, 가신곡 , 빈탕	묘유형기과, 의소화불 량, 기체증
형	7	오 00	29	기과, 담음기, 면과얼굴돌출	82/80 심포-위-방광	帶下랑다, 비린냄새, 수족냉, 생리불 순	향사평위산	얼굴과입돌출형의 조잡
형	8	이 00	35	기과, 목길고 코비뚤고 눈썹짜기, 난대 정위차이남	68/76 간-대장-방광	帶下혈사, 생리량소, 자궁근증, 내막 증, 우소복자통, 소변일력, 현훈, 식체	반중산 가사삼, 소화향, 천련자	기과의산증 형상, 증상
형	9	김 00	33	기과, 면상중하, 관골대, 어제청	61/78 간-대장-방광	帶下, 생리감색, 소복자통(내막증) 현 미경상혈뇨	반중산 가사삼, 소화향, 천련자	기실자의 하초기체
형맥	10	강 00	30	기과, 면납적, 코내려먹음, 안포후, 입 술두툼, 아마턱여드름	69/65 간-대장-담	생리통심, 소복자통, 帶下, 2세초경, 홍 민, 현훈	반중산	소복냉, 운행블리로하 초기체
형	11	한 00	33	기과, 구대, 면적, 어제청, 담음기, 난대 정위차이	63/61 간-대장-담	帶下, 생리지연, 음부찌릿, 원임신	반중산 가사삼, 소화향, 천련자	소복냉, 담음기, 한산
형증	12	강 00	29	기실, 얼굴길고, 안경착용(1달전결혼)	69/78 비-소장-담	매핵기, 상열, 帶下, 月經불순, 조잡	이진탕 매핵기방	기실자 안경 착용, 매핵기
형증	13	정 00	34	신과, 구대, 눈가주름, 눈꼬리들림, 코 끝상향, 담음기	80/82 심포-위-담	배란기출혈, 생, 생리지연, 소복통, 음 부소양	사물탕가새이통방 합 이진탕	음혈허와 담음, 기골
형	14	장 00	9	담체, 신과, 얼굴 검은편		질염, 냉다, 소변저림, 도한구내염, 식 욕부진	심미도적산	소장열
형	15	이 00	4	면적, 인중들림, 性急, 방광체, 눈꼬리 들림		음부발적, 소양, 냉, 과식경향, 소변삭, 한출다	심미도적산	소장열
형	16	백 00	5	인중단, 비공누설		음부발적, 냉다, 도한, 소변색진, 냉새 강	도적산	심, 소장열
형	17	한 00	27	조류, 콧날오뎅, 삼초결, 면색검은편	78/75 비-소장-방광	帶下, 찬물달으면손시림, 소화불량, 대변경	익위승양탕 / 이진탕 嚙雜, 帶下方	조류, 기실자의조잡
형	18	김 00	3	조류, 눈동랄고, 입술얇으며, 인중들림 비공누설, 귀크다		음부소양, 냉다, 소변불리, 도한잡꼬 대, 舌苔厚	도적산	심, 소장열
형	19	전 00	24	조류, 담음기, 눈꼬리들림, 코내려먹음 유방대, 어제청, 입술건조, 체중증가	81/84 포-위-담	생리량소, 帶下, 탄산, 조잡, 오심, 손발 시림, 우족비통	이진탕 嚙雜, 帶下方	조류의조잡, 帶下
형	20	김 00	28	조류, 코위주, 코끝상향, 안경, 담음기, 입기울음	71/76 비-소장-담	생리통(유방, 전신) 帶下多, 오심, 현훈 안통, 두통, 불숙면	이진탕 嚙雜, 帶下方	조류가안경착용, 담음 형상의조잡
형	21	김 00	27	주류, 面長, 눈꼬리상향		질염, 음부소양, 帶下미완갈체함, 속 쓰림, 답담	용담사간탕	주류의간장습열
형	22	강 00	27	太陽形, 면백	80/76 심포-위-방광	적帶下, 둔점통, 오심, 긴장시심계, 매 핵기, 변비, 수족통	이진탕 消導, 帶下方	太陽허증, 올려증
형증	23	김 00	30	太陽形, 면부택적, 코위주		帶下, 음부소양, 생리불순	이진탕 帶下方	기울되기 쉬운형의 습열帶下
형증	24	배 00	32	양명, 기과, 얼굴납적, 눈 밑 담음기	70/71 비-소장-담	帶下미황색, 생리통심, 소화불량, 체 중증가, 홍민, 항강	이진탕 加蒼, 백, 승, 시, 천, 산	양명 기과의 내상, 帶下
형	25	정 00	36	양명형, 묘유형기과, 비인, 면볼록, 콧 대높다, 어제청	79/81 포-위-담	帶下유취, 음부소양, 홍민, 상열, 오심, 과식	화담정화탕 / 이진탕 嚙雜, 帶下方	양명형의식육양진, 기 과월체
형증	26	김 00	25	양명형, 면적, 관골대	71/66 간-대장-담	帶下多, 생리불순(3달缺), 조잡, 오심, 턱주위여드름	이진탕 嚙雜方	양명형의조잡
형증	27	조 00	32	삼양발달, 면볼록, 면백, 사지 길다.	68/68 비-소장-담	출산후부月經, 음부소양, 帶下, 음정	소감파독산	삼양발달자의 음부소양
맥	28	전 00	32	기과, 관골대, 안경착용, 눈가주름, 눈 꼬리상향	66/69 간-대장-담	帶下多, 생리량소, 수족냉, 홍민, 오심, 16세초경, 임신원함	가미귀비탕 / 이진탕 帶下方	맥이간비울결, 기과의 기체
맥증	29	서 00	26	기과, 비인	104/104 폐-방광-방광	음부소양, 帶下심	용담사간탕	간의습열
맥	30	최 00	26	주류, 입술탈색, 어제청, 삼초결, 키름(1 65cm)	61/69 간-대장-방광	생리불순, 통, 帶下, 16세초경, 조잡, 오 심, 홍민	온경탕	중임맥허손
증	31	최 00	30	관골대, 코내려먹음, 기실, 임신원함	77/78 심포-위-담	생리통심, 帶下多, 수족소복냉, 홍민, 오심, 16세초경	온경탕	포궁허한, 초경지연, 생리통
증	32	김 00	25	면적, 입술건조, 어제청	58/61 간-대장-방광	月經지연, 帶下多, 편도잘붓고 멍울	온경탕	천지비색으로허열상 출(편도, 목에멍울)
맥	33	이 00	34	관골대, 남자상(키169cm)목과허리길 다, 면적흑색	76/73 비-소장-방광	생리불순, 帶下, 유산1회, 홍민, 가끔호흡곤란(흡연), 조잡	온경탕 /보중의기탕 유평방	남자같은여자, 유산후 유증

그 이외에 환자들이 가진 모습은 눈초리가 올라갔거나, 코 위주로 생긴 경우, 관골이 발달한 경우, 눈 밑에 痰飲氣가 있거나, 키가 크거나, 목이 긴 경우, 魚際가 푸르거나, 코끝이 내려 먹은 경우, 눈이 짝짜기, 혹은 난대 정위가 차이 나는 경우, 입술이 건조하거나, 鼻孔이 漏泄된 경우, 눈가에 주름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형상을 볼 수 있었으며, 대체로 鬱滯되기 쉽거나 火가 많은 경향을 가진 형상, 혹은 胃中 濕痰을 가진 形象의 경우에 帶下의 증상을 많이 가진다고 볼 수 있었다.

帶下가 주소증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生理痛, 生理不順, 不妊, 陰部搔痒症, 疝症, 자궁의 基質的인 병변인 筋腫, 囊腫, 內膜症 등 下焦의 질환을 함께 호소한다.

또는 濕痰으로 인한 소화기의 증상인 消化不良, 嘈雜, 惡心, 嘔逆, 멀미, 등의 中焦의 증상을 겸하는 경우가 있었다.

혹은 氣鬱, 痰鬱 또는 熱鬱로 胸悶, 不安, 上熱感, 頭痛, 項強, 眩暈, 등의 上焦 증상도 많이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므로 帶下는 전신적인 증상과 동반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 《東醫寶鑑》에서 帶下의 治法은 “濕熱로 인해 병이 된 것이니 주된 치료는 濕을 말리는 것이다”라 하였고, “帶下는 胃 속의 쌓인 痰이 흘러내리는 것이니 끌어올려야 하며, 심하면 위로 吐法을 쓰고 아래로는 二陳湯을 가미하여 쓴다.” 하였고, 또한 婦人, 妊娠婦와 처녀, 마른 사람과 살찐 사람을 구분하여 치료하였다.

形象醫學的인 치료도 예를 들어 任脈 上에 여드름이 있거나, 胞가 차서 임신이 안 되거나, 관골에 기미가 있는 경우, 流産 후에 瘀血이 제거되지 않아 입술이 벗겨지는 경우나 턱에 여드름이 있으면 溫經湯을 쓸 수 있고, 地積象으로 생긴 경우는 五積散을 쓰거나, 中氣가 下陷하고 소화가 좋지 않은 경우는 益胃升陽湯 또는 補中益氣湯을 쓸 수 있으며, 子宮이나 前陰에 기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蟠葱散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肝의 濕熱이 있으면 龍膽瀉肝湯을 쓰고, 痰飲 등으로 소화도 좋지 않고, 눈 밑에 답음기를 띄고 있으면 二陳湯을 가미하여 쓸 수 있다.

위의 治驗例에서 帶下를 치료한 처방을 분석해 보면 二陳湯의 加味方이 제일 많아 13례에서 활용되었고, 行氣香蘇散, 加味四七湯, 加味歸脾湯, 香砂平胃散, 益胃升陽湯, 溫經湯, 蟠葱散, 四物湯加 生理痛方, 龍膽瀉肝湯, 消痞敗毒散, 五積散 등을 활용하였다. 가미한 약물은 대개 消導劑, 行氣劑, 升陽劑, 清熱劑 등을 주로 가하여 썼다.

臨床例 취집이 한정적인 상황(20~36세 사이의 여성으로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았고, 10세 이하의 여아 4례가 있었다.) 하에서 이루어져 보편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필자가 치료한 환

자들에게는 帶下의 治方으로 二陳湯이 가장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보아, 痰飲과 氣滯, 氣鬱이 帶下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사회적인 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의 스트레스와 식생활의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며, 《東醫寶鑑》의 帶下治法 중 禁忌에 “帶下는 반드시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의 우수한 치료는 女兒들의 陰部瘙痒과 帶下는 心, 小腸의 熱로 보고 導赤散, 十味導赤散을 활용하여 효과가 탁월하였다.

더불어 위의 臨床例에서 효과가 좋은 경우는 한계 정도만 투여하여도 거의 반 정도의 증상이 소실되는 경우도 많았고, 帶下가 좋아지면서 妊娠이 된 경우도 3례가 있었다.

이와 같이 形象醫學的인 진단에 의해 치료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결론

帶下症을 가진 여성 환자의 形象醫學的인 治驗例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帶下는 氣科, 神科, 氣實하거나, 鬱滯되기 쉬운 형상, 火性을 띠거나, 痰飲, 氣鬱, 熱鬱, 疝症의 形象에서 많이 나타난다. 帶下의 隨件 症狀은 上中下焦의 症狀를 두루 겸한다. 즉 生理痛, 生理不順, 生理量의 多少, 陰部瘙痒, 疝症, 不妊, 腰痛 등 子宮과 연관된 下焦의 증상과, 또는 消化不良, 惡心, 嘈雜, 嘔逆, 吞酸 등의 소화기 계통의 中焦 증상, 혹은 梅核氣, 胸悶, 頭痛, 眩暈, 項強, 上熱, 여드름 등의 上焦 증상이 있다. 治療 處方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二陳湯이었다. 그 외에 加味四七湯, 行氣香蘇散, 加味歸脾湯, 香砂平胃散, 溫經湯, 蟠葱散, 龍膽瀉肝湯, 消痞敗毒散, 五積散 등의 처방이 주로 활용되었다.

참고문헌

1. 許俊著, 對譯東醫寶鑑, 경남, 東醫寶鑑出版社, 2005.
2. 宋炳基著, 韓方婦人科學, 서울, 杏林出版, 1992.
3. 大韓形象醫學會,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VII, 서울, 芝山出版社, 1999.
4. 大韓形象醫學會, 芝山形象醫案, 서울, 芝山出版社, 2003.
5. 安昶中編, 古今實驗方, 서울, 杏林書院, 1977.
6. 張仲景著, 仲景全書, 臺北市, 大方出版社, 1978.